

불평등에 맞서는 정의로운 기후시민 되기





목차

1. 문제 Problem 기후위기가 불평등의 문제라고?	04
활동 1. — "내가 기후난민이 된다면?" 공감활동	06
활동 2. — "나는 어디에 서 있나요?" 감각활동	13
활동 3. —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나무" 분석활동	21
2. 해결 Solution 우리는 기후정의로 간다!	28
1) 공공의 자원 보장하고 평등 만들기	29
활동 4. — "필수자원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 체크활동	30
2)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국제사회, 이걸 어쩐다?	33
활동 5. — "움직여라, 국제사회!" 쓰기활동	35
3) 세상 바꾸기! 그런데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	38
활동 6.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보자" 스포큰워드활동	39
* 참고읽기자료 목록	43

시작하기에 앞서, 한 번 읽어주세요.

- 본 교육 매뉴얼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이 기후정의 실현의 핵심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제작한 자료입니다. 기후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하지만, 해결에 있어서는 인권의 관점이 필요하고 특히 사회적 평등을 향상시켜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주력했습니다.
- 본 매뉴얼은 <문제-해결> 2가지 파트와 6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자의 역량과 이해도, 활동을 진행하시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집중하고자 하는 파트 및 활동을 선택하셔서 적절하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연령대를 막론하고 평소 기후위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거나 관련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기후위기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피해자면서 동시에 이에 맞서 싸우며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를 먼저 학습하면서 그들의 입장에 이입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참여자 자신에 대한 것 보다는, 누군가의 역할이 되어 기후위기를 감각하고 해결해보는 방식으로 구성된 활동이 많은 만큼,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어렵게 맞서고 있는 이들을 불행한 사람으로만 단편적으로 인식하거나 대상화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세요. 또한, 참여자 자신에 대한 배경과 정체성(경제적 상황, 지역 등)이 직접 드러나서 당황하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없게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 전대미문의 기후위기인 만큼 해결에 있어서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고정관념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많이 지지받으면서 생각을 확장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마지막 활동인 '스포큰 워드(spoken word)'에서는 참여자 모두가 서로에게 박수나 환호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참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지지받는 경험,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는 경험을 통해서 기후정의로 향하는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매뉴얼은 첫 번째 버전의 자료입니다. 따라서 교육자들께서 본 매뉴얼을 활용, 참고하여 교육을 진행하시거나 자료를 확인하신 후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향후 버전업 자료를 개발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기후정의교육 매뉴얼 ver.1 활용 피드백 남기기 <https://forms.gle/buNr5FLGQCvGGajk9>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기후위기’는 이제 낯설지 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폭염과 폭우, 가뭄 등 우리는 현실에서 심상치 않은 기후위기의 현상들을 직접 보고 겪기도 하지만, 여전히 기후위기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피해나 전쟁 혹은 갈등은 먼 나라의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번 상상해볼까요?

내가 지금 당장 ‘기후난민’이 되어서 필요한 짐만 싸서 살던 곳을 급하게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집으로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나와 친한 친구들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고, 위험과 불편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막막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글픈 상상이 실제 현실인 사람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많습니다.

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 출신인 이오안 테이티오타(loane Teitiotia)는 기후위기의 결과로 자신의 나라에서 심각한 토지분쟁의 위협과 안전한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주하여 난민 지위를 신청했습니다. 키리바시와 같은 저지대 섬 국가는 해발 1~2m에 불과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거주 가능한 토지와 깨끗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등 심각한 기후위기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키리바시를 비롯하여 수많은 섬나라의 국토는 해수면 상승으로 잠겨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팔라우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북반구 국가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에는 존엄이 없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 보다는 차라리 우리를 폭격해라.”**

모잠비크, 필리핀 등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거나, 더 심해진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과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했고, 부득이 이주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온 전쟁으로 자신의 삶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에서 일어난 '다르푸르 분쟁'은 21세기의 첫 기후전쟁으로 꼽힙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족 갈등으로 비롯되었다고 알려진 이 분쟁의 이면에는 식수원과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한 민족 간 생존갈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난과 식수난이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갈등과 접목되면서 참담한 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한 **시리아** 내전에도 기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2007년부터 시작된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농민들이 한꺼번에 도시로 몰려들었고, 시리아의 도시는 인구 수용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면서 가난, 범죄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표출되기 시작한 어려움이 내전으로 치달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전 세계 20억 명의 사람들이 '기후난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난민'은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언젠가 '기후난민'이 되는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력감과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후위기를 보며 절망하는 모든 이유가 동시에 우리가 희망을 품고 행동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 활동목적**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직접 '기후난민'이 되어 자신의 기분과 상황, 계획을 담은 일기를 씁니다. 본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바라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시간**

20분

*** 진행방법**

1. 참여자들에게 간단히 본 활동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신이 '기후난민'이 되어 당장 내일 급하게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고 요청합니다.
2. '기후난민'으로서 <빈 칸 일기장>에 자신의 느낌과 계획을 간략히 작성해보게 합니다. (자유로운 형태의 일기를 작성해도 좋습니다.)
3. 작성이 완료되면 짝공과 (혹은 그룹에서) 자신이 작성한 <빈 칸 일기장>의 내용과 작성하며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4. '기후난민'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나 '기후난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략히 설명하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 진행노트**

- '기후난민'이 되어보는 활동은 간단한 도입활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실제 '기후난민'을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 무력감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며 활동을 이끌어주세요.
- 경험보다는 상상에 기반한 활동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막막해 하는 경우, 다양한 예시를 들어주세요.
 예) '꼭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은?' 가족, 친구, 반려동물 등 / '집에 꼭 챙겨갈 것들'에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 외에도, 놀 권리와 관련된 물건 등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 '만약 목적지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간다, 입국을 거부당한 곳에서 그 나라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서 캠페인을 펼친다 등
- 참여자들의 감정 이입과 상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주거지를 떠나게 된 실제 사람들의 예가 필요하다면 위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분쟁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주세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기후위기'는 이제 낯설지 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폭염과 폭우, 가뭄 등 우리는 현실에서 심상치 않은 기후위기의 현상들을 직접 보고 겪기도 하지만, 여전히 기후위기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피해나 전쟁 혹은 갈등은 먼 나라의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해요.

한번 상상해볼까요?

내가 지금 당장 '기후난민'이 되어서 필요한 짐만 싸서 살던 곳을 급하게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집으로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나와 친한 친구들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고, 위험과 불편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막막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고있는 마다가스카르의 남부 지역
©Pierrot Men for Amnesty International

내가 기후난민이 된다면?

심각한 기후위기로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내일 당장 급하게 다른 나라로 떠나는 나의 이야기를 <빈 칸 일기장>에 작성하고
나눠보아요.

- * 나는 내일 ()와 함께 한국을 떠날 예정이다.
한국은 기후위기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 * 짐을 많이 가져갈 수 없다고 해서 ()을/를
배낭에 넣었다.
- * 나는 ()로/으로 떠날 계획이다. ()을/를
타고 이동하면, 대략 이동 시간은 () 정도 걸릴 것이다.
- * 그 곳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가더라도 나는 ()이 걱정된다.
- * 그런데 만약 그곳에 가지도 못한다면,
그 다음 계획은 ()이다.
- * 한국을 떠나기 하루 전인 지금,
나의 기분은 ()다/이다.

※ 기후위기가 심화시키는 불평등

기후위기는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 전체의 위기지만, 모두가 똑같은 수준으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도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최상위 부유층의 사람들은 지난 25년 동안, 세계 인구 50%의 가난한 사람들보다 2배 많은 탄소를 사용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더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는 사람도 있고, 전혀 피해를 겪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합니다.

세계에서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인 **마다가스카르**는 2022년 8월 현재, 남부 지역에서 역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 굶어 죽기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잠비크에서는 2010년에 한 지역에서 매우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발견되었습니다. 천연가스는 '천연'이라는 이름과 달리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석탄, 석유와 함께 대표적인 화석연료 중 하나입니다. 그 뒤로 모잠비크 정부는 천연가스를 채굴한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주민들을 내쫓고, 저항하는 주민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며 공격했습니다. 쫓겨난 주민들은 천연가스 채굴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으면서, 천연가스를 가리켜 "더러운 에너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채굴된 천연가스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높은 국가들에 수출됨으로써 기후위기를 더욱 부추겼고, 지역 사람들은 강제 퇴거 과정에서 인권을 짓밟혔을 뿐 아니라 이후 기후위기로 인한 폭풍과 홍수 등의 극심한 이상기후의 피해 또한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인디언과 같은 **선주민***들은 다코타 송유관이 그들의 지역에 건설되면

* 특정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던 사람이나 집단을 '원주민'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원래'를 언제부터로 기준을 잡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원래, 본래' 살던 사람과 '새롭게' 이주해온 사람으로 대치하면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원주민'은 과거 이주민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뉘앙스를 담아서 인류학적으로는 부정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주한 사람보다 먼저 살고 있었다는 의미의 '선주민'으로 통칭하여 사용합니다. 차별적인 요소가 없거나 덜한 용어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누출 사고 등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며 미국 정부에 맞서 싸웠고 2016년에는 건설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선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석유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석유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기후위기의 피해를 더 많이 겪는 이들입니다.

‘어디에 사느냐’를 포함하여, **각자가 가진 여러 가지 정체성에 따라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받는 정도도 다릅니다.** 아동과 청소년, 노인,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선주민, 이주민 등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훈련이나 정보에 있어서 소외되어 있는 편입니다. **또 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불평등을 많이 겪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되면 더 많은 불평등을 겪게 됩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여성**들은 물을 뜨러 다니는데 하루에 평균 54분의 시간을 씁니다. 가뭄이 되면 그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뜨러 먼 거리를 걸어 다녀야 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여성을 어린 나이에 강제로 결혼하게 하는 ‘조혼’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아프리카 여성들에게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인도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지역의 **농민**들이 기후난민이 되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과도한 농약 사용 등으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큰 빚을 지고 기후난민이 되는 것인데요, 평범하게 농사 지으며 살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을 떠나 이주민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대부분 유럽이나 북미 등의 북반구 국가들을 향해 떠나는데, 북반구 국가들은 국경에 많은 군인들을 두고 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점점 더 막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태풍이나 폭우와 같은 재해가 닥치고 난 후에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이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데려가서 성매매에 동원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재해를 겪으면서 더 가난하고 어려워진 가정들에 적은 돈을 주고 아동과 청소년을 데려가는 범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간다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정부가 성소수자 쉼터를 습격하여 성소수자들을 강제로 잡아가지고 구속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간다 정부는 “성소수자가 코로나 팬데믹을 확산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습격 하면서, 정부가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사건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면 권력과 책임을 가진 자들이 언제나 **소수자와 약자**를 희생양 삼아 비난과 혐오, 차별을 조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을 자주 목격해왔습니다. 기후위기로 발생하고 악화되는 각종 재난과 재해 속에서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소수자들은 그렇기에 더욱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흔히 ‘**북반구** 국가들’이라고 묶어서 부르는 유럽, 북미 국가들에서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의 많은 부분을 배출해왔고, 이로 인해 기후위기에 이르자 앞으로 전 지구 차원에서 탄소배출을 제재하자고 선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가 여기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의 탄소배출에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남반구** 국가들’에게는 매우 불평등한 일입니다.

이러한 탄소배출의 불평등은 **세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아동·청소년 세대**는 탄소 배출에 큰 책임이 없는데도, 그로 인한 피해는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세대입니다. 한편으로는 **노인 세대** 또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세대입니다. 한국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노인 빈곤율이 극심한 나라여서 한국의 노인 세대는 노화와 빈곤을 겪으면서도 사회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 계층에 있어서도, 경제적 이익을 가장 많이 얻는 기업들과 소수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불러온 기후위기로 인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입고 죽기까지 하는 이들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겪었던 폭우와 폭염의 피해를 보면, 그 피해의 차이는 지역과 지형에 따른 차이도 있었지만 경제적 계층과 주거 환경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를 복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 피해를 입기 전처럼 회복하는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큼니다.

또 지구의 **다양한 생물 종** 사이에도 이와 같은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인간에게 있지만, 급격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동물이나 식물들이 죽어 가고, 한 종이 모두 사라지는 멸종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후위기의 피해자들은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직접 겪으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습득해서 위기 해결에 앞서서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천연자원 착취 또는 기업의 횡포로 농촌 지역사회가 직면한 이주, 빈곤 및 환경오염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대규모의 공장식 축산업, 불법 벌목, 무분별한 광업, 댐 건설, 화석연료 산업 등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토지와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사람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은 위기에 맞서서 먼저 싸우고 있습니다.**



*** 활동목적**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사람마다 피해를 겪는 정도는 같지 않다는 것을 텍스트가 아니라 움직임 활동을 통해 느껴봅니다. 본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을 물리적으로 감각해보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시간**

40분

*** 진행방법**

1. 모든 참여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2. 참여자들에게 간단히 본 활동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진행도구를 활용해 캐릭터 카드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참여자들이 캐릭터 카드를 직접 선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3. 선택/배정된 캐릭터 카드를 테이프를 사용해 등에 붙입니다.
4. 모든 참여자가 같은 출발선에 나란히 선 후,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짧게 소개해보라고 요청합니다. 참여자들에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캐릭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볼 것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5. 상황지의 문장을 하나씩 읽으면 해당하는 사람은 한 발짝 앞으로 움직이라고 안내합니다.
6. 모든 문장을 읽고 난 후,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참여자의 느낌과 생각을 간략히 들어봅니다. (가장 많이 앞으로 나온 사람, 거의 움직이지 못한 사람,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등)
7. 전체로 모여 (혹은 그룹에서) 아래의 질문을 활용해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활동지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 ❖ 당신은 어떤 캐릭터였나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 ❖ 다른 캐릭터와 점점 벌어지는 거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들었나요?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캐릭터 간 거리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 ❖ 자신의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인상 깊었던 캐릭터가 있었나요? 이유는?
- ❖ 진행자가 읽어준 문장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이유는?
- ❖ 한 걸음 나아가야 할지, 그대로 있어야 할지 주저한 적이 있었나요? 이유는?
- ❖ 여러 캐릭터 중에 기후위기에 덜 영향받고 더 영향받는 캐릭터가 있었나요?
- ❖ 캐릭터 간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자신이 가진 특권(자원) 인식하기,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기 등

*** 진행노트**

- 참여자들이 자신 혹은 타인이 맡은 캐릭터를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캐릭터에 따라 움직임 활동 과정에서 무력감이나 우울감을 느끼지 않도록 활동을 이끌어주세요. 참여자 자신의 배경과 정체성(경제적 상황, 지역 등)이 직접 드러나거나 연관된 캐릭터가 나오게 되었을 때 당황하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 참여자 수에 따라 캐릭터 카드의 수를 정합니다. 아래의 캐릭터 카드 수보다 참여자 수가 더 적다면, 참여자 수에 맞게 적절하고 다양한 캐릭터 카드를 미리 선정합니다. 캐릭터 카드 선정 시 기후변화에 더 영향을 받는 사람과 덜 영향을 받는 사람을 적절히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자 수가 더 많다면, 새로운 캐릭터 카드를 자유롭게 추가하고 변형하여 준비합니다.
- 직접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권하지만, 물리적 공간에 제약이 있고 인원이 너무 많다면, 활동지에 있는 무지개 말판을 활용하여 캐릭터 카드로 각자의 말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출발선에서부터 각자의 말로 움직여서 무지개의 어느 색상까지 이동했는지 알아보기)
- 진행방법 숙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스브스 뉴스\] 소셜실험 '너라면?' 시청](#) 해보세요.

*** 상황지 리스트**

1. 나는 폭우나 폭염이 오더라도 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2. 나는 폭우, 폭염, 혹한 등 극심한 이상기후가 있더라도 건강과 생계에 지장이 없다.
3. 나는 홍수, 쓰나미, 산불 같은 자연재해를 겪더라도 생계수단을 잃지 않을 수 있다.
4. 나는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충분하고 양질의 물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다.
5. 나는 기후변화를 이유로 내 집, 내 고향, 내 나라를 떠날 필요가 없다.
6. 나는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7. 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바이러스와 질병(말리리아 영양실조 설사병과 열 스트레스 등)의 위협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8. 나는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9. 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10. 나는 탄소배출 산업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만 그 부작용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11. 나는 재해와 재난 발생 시 희생양 찾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의 타겟이 되지 않는다.
12. 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겪는 피해를 인터넷이나 TV, 기사로 주로 접한다.
13. 나는 전쟁이나 폭력의 위험에 처해있지 않다.
14. 나는 나의 정체성,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
15. 나는 나와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6. 나는 나의 일상에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탄소사용 제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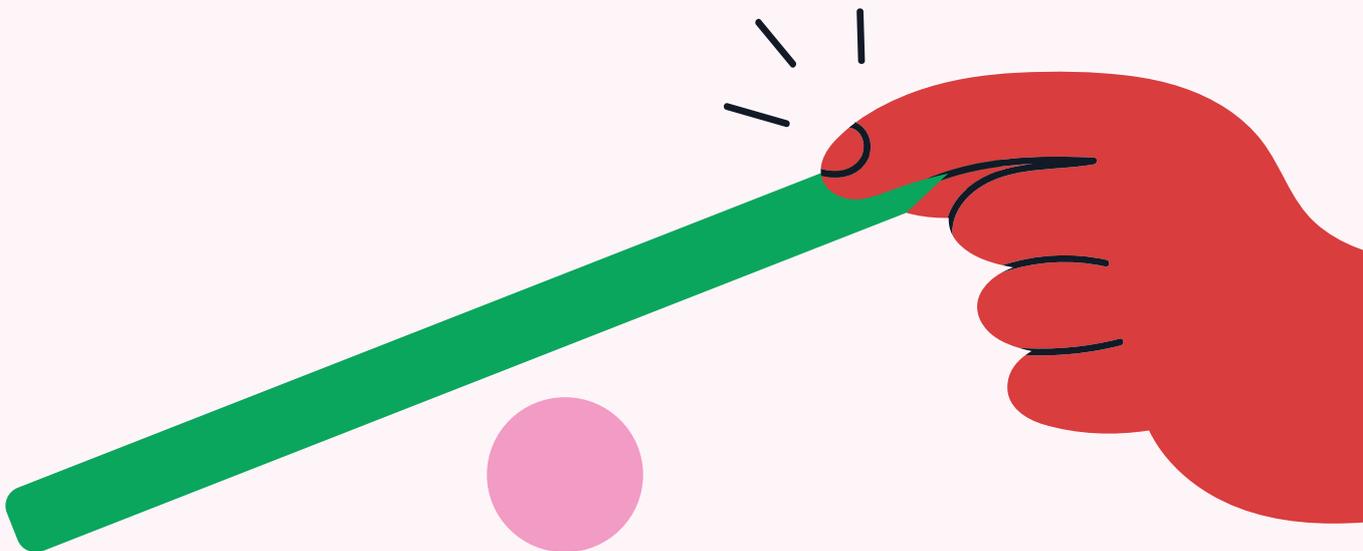




<p>대중교통이 없어 장시간 걸어서 학교에 다니는 12세 여성 아동</p>	<p>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57세 건설노동자</p>	<p>탄소배출 1위 기업의 65세 사장</p>
<p>탄소배출 1위 기업의 비정규직(계약직) 45세 노동자</p>	<p>휠체어를 사용하는 21세 장애인</p>	<p>고학력을 가진 35세 국제기구 종사자</p>
<p>쪽방촌과 거리에서 생활하는 80세 노인</p>	<p>전쟁을 피해 열악한 임시 캠프에 거주하는 9세 난민 아동</p>	<p>따르는 신자가 많은 55세 종교 지도자</p>
<p>기초연금으로 2세, 4세 두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38세 싱글맘</p>	<p>매년 약 20개의 폭풍과 태풍이 강타하는 섬의 14세 청소년</p>	<p>연봉이 높은 회사에 다니는 25세 직장인</p>
<p>해수면이 상승하여 국토가 침수되는 나라의 24세 청년 정치인</p>	<p>자연환경에 의지해 생계를 이어가는 75세 농어촌 주민</p>	<p>소득상위 20% 가정환경에서 살아가는 15세 청소년</p>
<p>불경기로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28세 취업준비생</p>	<p>인종차별이 극심한 나라로 이주한 33세 이주노동자</p>	<p>도시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 42세 전문직 종사자</p>
<p>사회의 다수 사람들과 다른 종교, 문화, 언어를 사용하는 64세 소수민족</p>	<p>저지대 반지하에 거주하는 51세 저소득 일용직 노동자</p>	<p>해외여행 플렉스를 즐기는 29세 사회초년생</p>
<p>자연재해, 각종 감염병 확산 시 혐오의 타겟이 되는 37세 성소수자</p>	<p>야외에서 방호복을 입고 일 해야 하는 34세 공무원</p>	<p>전 세계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의 80세 대통령</p>
<p>가뭄으로 인해 2시간 넘게 걸어서 물을 뜨러 가야 하는 16세 여성</p>	<p>환경오염으로 대대손손 살아오던 땅을 잃고 질병을 앓고 있는 42세 선주민</p>	<p>전 세계 가장 부유한 상위 1% 속하는 최고부자의 5세 자녀</p>

기후위기가 심화시키는 불평등

기후위기는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 전체의 위기지만, 모두가 똑같은 수준으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도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의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은 지난 25년 동안 가난한 50%의 사람들 보다 2배 많은 탄소를 사용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는 사람도 있고, 전혀 피해를 겪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나요?



※ 당신은 어떤 캐릭터였나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 _____

※ 다른 캐릭터와 점점 벌어지는 거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들었나요?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_____

※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캐릭터 간 거리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 _____

※ 자신의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인상깊었던 캐릭터가 있었나요? 이유는?

→ _____

※ 진행자가 읽어준 문장 중 가장 인상깊었던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이유는?

→ _____

※ 한 걸음 나아가야 할지, 그대로 있어야 할지 주저한 적이 있었나요? 이유는?

→ _____

※ 여러 캐릭터 중에 기후위기에 덜 영향받고 더 영향받는 캐릭터가 있었나요?

→ _____

※ 캐릭터 간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_____

*** 실제로 내가 해당된다면 왼쪽 박스에 체크해보세요.**

- 나는 폭우나 폭염이 오더라도 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 나는 폭우, 폭염, 혹한 등 극심한 이상기후가 있더라도 건강과 생계에 지장이 없다.
- 나는 홍수, 쓰나미, 산불 같은 자연재해를 겪더라도 생계수단을 잃지 않을 수 있다.
- 나는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충분하고 양질의 물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다.
- 나는 기후변화를 이유로 내 집, 내 고향, 내 나라를 떠날 필요가 없다.
- 나는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 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바이러스와 질병(말리리아 영양실조 설사병과 열 스트레스 등)의 위협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 나는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 나는 탄소배출 산업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만 그 부작용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나는 재해와 재난 발생 시 희생양 찾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의 타겟이 되지 않는다.
- 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겪는 피해를 인터넷이나 TV, 기사로 주로 접한다.
- 나는 전쟁이나 폭력의 위협에 처해있지 않다.
- 나는 나의 정체성,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
- 나는 나와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나는 나의 일상에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탄소사용 제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움직임 활동을 하기에 공간이 좁다면,
다음의 무지개 판에서 캐릭터 카드를 이동시켜보세요.



검정색	
회색	
보라색	
연보라색	
남색	
청록색	
파랑색	
초록색	
연두색	
노란색	
주황색	
살구색	
빨간색	
분홍색	
출발!	

*** 활동목적**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문제의 원인과 영향(결과)을 짚어봅니다. 본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멀게 느꼈던 불평등의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시간**

6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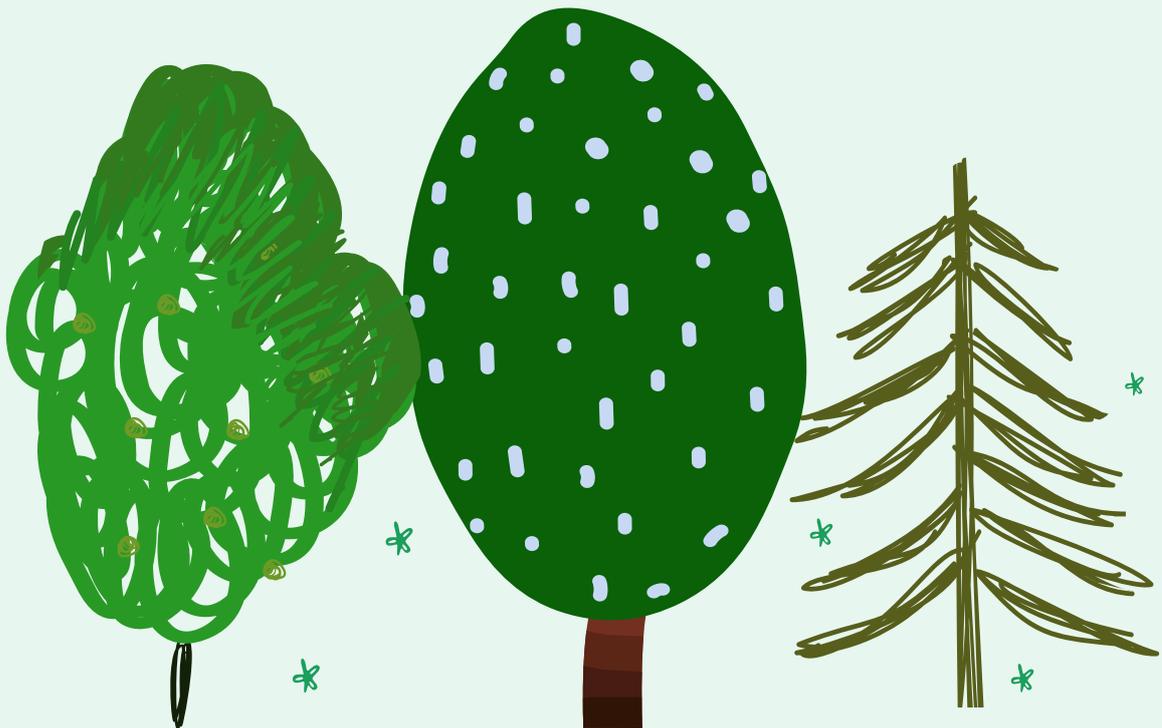
*** 진행방법**

1. 참여자들에게 간단히 본 활동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그룹으로 나누어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 그룹에 6명이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2. 그룹에게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토론을 통해 선택해보라고 요청합니다. 진행도구를 활용하여 그룹/개인에게 문제 예시를 나눠줘 참여자들의 선택을 돕습니다. 실제 관련된 기사나 뉴스 등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되도록 그룹별로 다루는 문제가 겹치지 않게 조정해주세요.
3. 나무의 기둥에 그룹에서 선택한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적게 합니다.
4. 나무의 뿌리 부분에는 문제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을 적게 합니다.
 -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인을 탐구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나무의 가지/잎사귀/열매 부분에는 문제로 인한 영향(결과)들을 적게 합니다.
 - 참여자들이 하나의 결과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결과 등 크고 작은 다양한 결과들을 두루 탐구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원인과 결과가 같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인에 썼던 요소라도 그것이 문제의 결과로도 분석된다면 작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6. 그룹별로 돌아가며 그룹에서 선택한 핵심 문제와 토론하여 적은 원인과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 진행노트**

— 각 원인과 결과에 대해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라고 계속 질문해주세요. “왜” 라는 질문을 통해 참여자들은 하나의 요인과 연결되거나 파생되는 또다른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참여자들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 많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 선택한 핵심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너무 많은 사전 지식이 필요할 경우 참여자들이 문제나무를 완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연령 및 학습 정도에 맞는 방법과 수준으로 문제를 선정해 원인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참여자에게 익숙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문제를 선택하면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불평등의 문제라고?

젠더 불평등

여성 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구조와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제한된 역할과 노동을 수행하는데, 특히 자연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이 많아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성들이 가사 및 돌봄 노동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같은 재난과 재해를 겪더라도 여성들은 더 과중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 여성들은 기존의 가사 및 돌봄 노동 외에도 생계를 위해 다른 노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경제권과 재산 소유권 등을 가지지 못하기에 기후변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못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재난의 여파로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여성들, 특히 나이가 어린 여성, 장애가 있거나 빈곤에 처한 여성들은 성폭력과 성착취, 강제 조혼과 같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지역 간 불평등

특정 지역은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상이변과 함께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식은 해안 및 섬 공동체의 삶, 생계 및 문화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뿐 아니라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도 특정 지역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빈곤한 지역, 국가비상사태 등 불안정한 정치상황, 기본 사회 서비스 및 자원이 부족한 지역, 분쟁이 계속되는 지역, 소규모 농업, 목축업, 어촌 공동체 등 기후에 민감한 생계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한편, 전 세계 탄소의 80%는 주요 20개국(G20)이 배출하지만, 상대적으로 빈곤한 나라에서 전체 기후 피해의 약 75%가 발생합니다. 빈곤한 나라는 탄소 배출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기후 위험에 더 노출되어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경제적 불평등 / 계층 간 불평등

세계 인구의 최상위 부유층 1%는 지난 25년 동안 가난한 50%보다 2배 많은 탄소를 사용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도 가

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더 큽니다. 부유한 사람은 위험에서 피할 자원과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받거나 대비책을 세울 수 없어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빈곤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기후변화의 가장 큰 부담은 빈곤층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빈곤을 심화시킵니다. 수억 명이 식량 불안정, 강제 이주, 질병 및 사망에 직면할 것입니다.

나이에 따른 불평등 / 세대 간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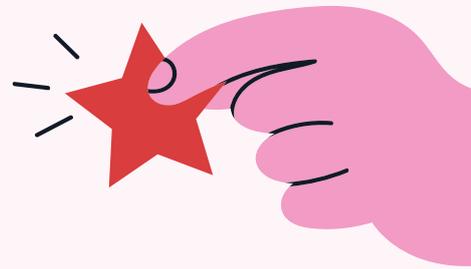
어린이와 노인들은 특히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 증가, 강수 패턴의 변화, 식량 및 물 부족, 전염병 전파 증가는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 생명, 식량, 물 및 위생, 주거, 문화 모든 것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아동은 고아가 되거나 가족과 분리되어 폭력, 신체적 학대, 아동 노동, 인신매매 및 착취의 희생자가 될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막으려면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그들의 조부모 세대가 쓰고 누리기 위해 배출한 탄소량에 비해 단지 6분의 1 정도만을 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배출하지 않은 온실가스 때문에 보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2021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6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배나 더 많은 폭염, 2배 더 많은 산불, 거의 3배나 많은 가뭄, 홍수, 기근이 일어나는 지구에서 살게 될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세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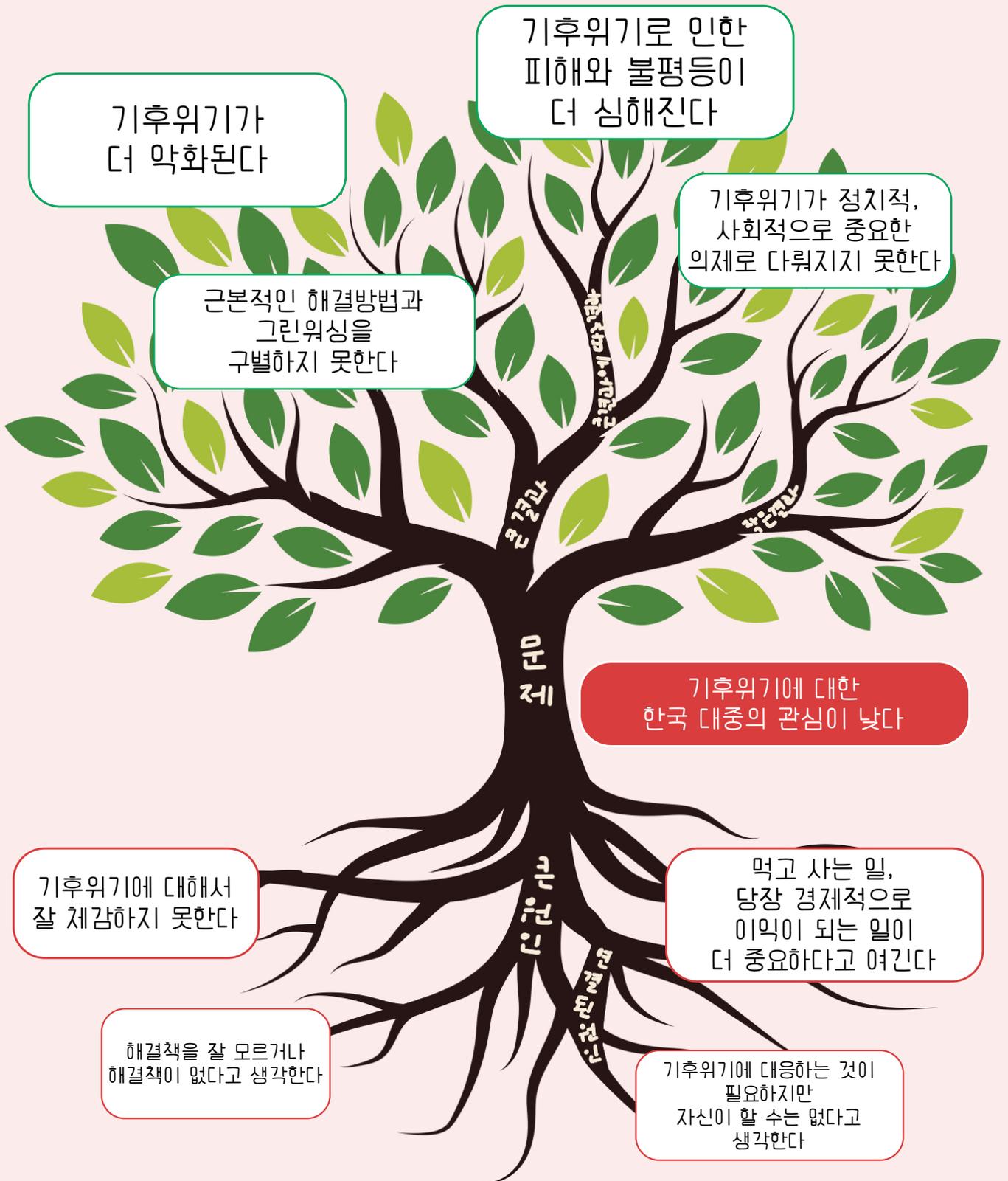
모든 국가에서 성별, 민족, 장애, 소득 등에 기반하여 소외, 배제되고 차별받고 불평등을 경험하는 소수자들은 기후변화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인종 차별에 직면한 커뮤니티와 소수 민족, 종교 및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 민족은 의사 결정 공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외진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전기 등이 부족하고 지역의 산업화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탄소배출을 많이 하지 않지만, 지리적 요건 때문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전통적인 토지에서 자연환경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선주민과 그러한 지역의 주민들 또한 기

후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의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이들의 권리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 및 채택됩니다. 장애인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미 적절한 주거, 교육, 의료, 음식, 물 및 위생 시설에 접근하는 것에 장벽이 있는 장애인에게 더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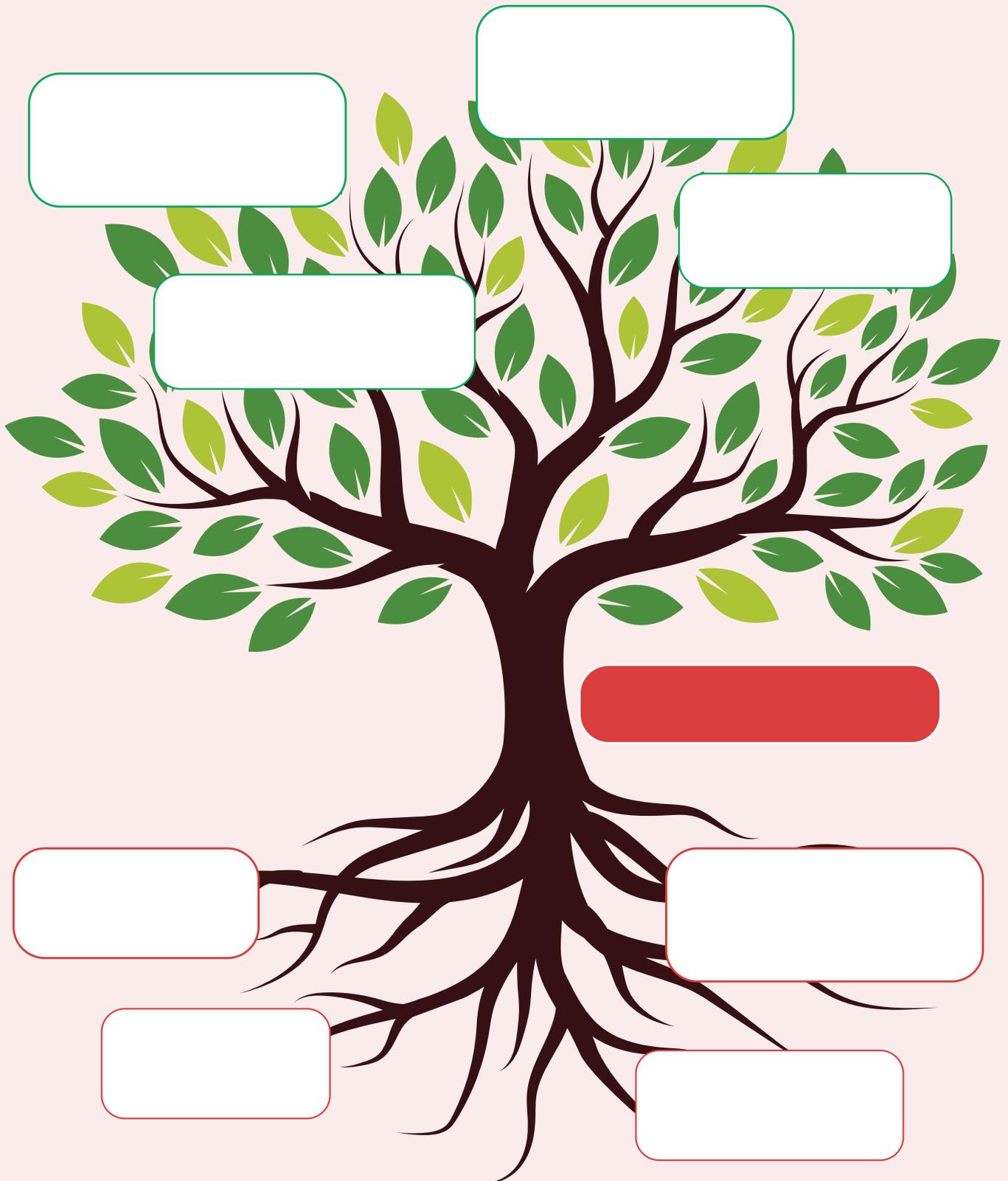
[참고기사: \[한겨레\] 가난하거나 어리거나...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얽혀 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나무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나무



✳ 기후위기를 정의롭게 해결해요! '기후정의'

기후위기의 피해를 받는 것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내가 아직 피해를 덜 받고 있다고 해서 위기를 외면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후변화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 해결 방법 또한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지만,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기후위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발생시킨 원인이 큼니다. 그로 인한 결과 또한 인권적이지 않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더 심하게 만들면서 악순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원인이 결과로 이어지고, 또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기도 하는 '되먹임' 현상(feedback, 환류)은 기후변화 안에서 지구과학적 요인들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사이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끊어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평등의 관점이 반드시 필요해요.

국가 간 및 국가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확산시키는 문제에 집중하여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후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기후행동의 중심에 인권의 관점을 두고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의 지식과 요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별, 인종, 계급, 민족, 장애 및 세대 간 정의는 기후정의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지식, 의견, 해결책을 기후행동의 중심에 두면 더 안전하고, 더 정의롭고,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로써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실천해가야 하지만, 혹시라도 너무 큰 죄책감이나 실망은 갖지 않기로 해요.

기후위기의 피해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고 있지 않은 것처럼, **기후위기를 불러온 책임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지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이 큰 국가의 정부나 기업들을 향해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벌을 많이 주거나 미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1) 공공의 자원 보장하고 평등 만들기

"평등할수록 안전해져요!"

물, 전기와 같은 자원이나 의료, 교통과 같은 서비스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적인 것들이 충분히 갖춰진 사회에서는 당연한 공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 평등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이와 같은 자원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고르게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자원이 부족하다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크고, 심한 경우에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필수적인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사회적 평등은 여러 분야에서 촘촘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특히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자원들을 누구나 평등하게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중요합니다.

필수적인 것일수록 민간 시장의 영역에서 경쟁을 통해 비싸게 거래되는 방식 보다는, 사회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과 정부, 지역사회 등이 함께 관리하면서 **누구나 공공의 자원을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활동목적**

평소 많이 이용하면서 당연하게 느끼는 필수 자원들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본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자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 불평등으로 인해 필수 자원조차도 고르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지역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시간**

10분

*** 진행방법**

1. 참여자들에게 간단히 본 활동의 목적을 설명하고, 활동2(“나는 어디에 서 있나요?”)에서 자신이 맡았던 캐릭터가 되어 활동지의 필수자원 체크리스트를 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2. 체크가 완료되면 짝공과 (혹은 그룹에서) 자신이 맡은 캐릭터가 누리고 있는 자원과 누리지 못한 자원이 무엇인지, 또 이런 필수적인 자원들을 이용하기에 더 어려운 사람은 누가 있을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 필수 자원일수록 민간 시장의 영역에서 경쟁을 통해 비싸게 거래되는 방식보다는, 정부가 적절히 관리하면서 누구나 공공의 자원을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 자신은 어느 정도로 필수자원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보기를 안내하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 진행노트**

— 참여자들이 자신 혹은 타인이 맡은 캐릭터를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참여자 자신의 배경과 정체성(경제적 상황, 지역 등)이 직접 드러나거나 연관된 캐릭터가 나오게 되었을 때 당황하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필수자원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

물, 전기와 같은 자원이나 의료, 교통과 같은 서비스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적인 것들이 충분히 갖춰진 사회에서는 당연한 공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 평등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이와 같은 자원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고르게 누리기 어렵습니다.

'활동2: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에서 말했던 캐릭터의 입장이 되어 다음의 표에 체크해 보세요. “평소에 물이나 전기를 사용하고, 병원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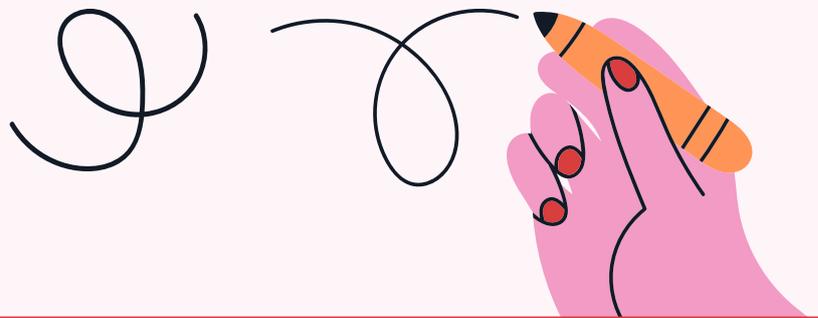
내가 평소에 이것을 이용(사용)하는 것은~	매우 편하다	편하다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언제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몸을 씻거나 뭔가를(음식, 물건 등) 세척하기에 충분한 물 				
전기 				
의료 서비스(병원, 보건소, 약국 등) 				
교통(목적한 곳까지 이동하기에 불편함-교통수단 유무, 비용 등-이 있는지) 				
필수노동 서비스 (우편, 택배, 위생 등) 				
돌봄노동 서비스 (양육, 간호 등) 				

✱ 이러한 필수 자원들을 이용하기에 더 어려운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 -----

✱ 이러한 필수 자원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 -----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 잘 체크해보셨나요?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크고, 심한 경우에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필수적인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것일수록 민간 시장의 영역에서 경쟁을 통해 비싸게 거래되는 방식 보다는, 사회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과 정부, 지역사회 등이 함께 관리하면서 누구나 공공의 자원을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2)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국제사회, 이걸 어쩐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협력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년에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조약입니다.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자는 전 지구적인 약속입니다. 이 협정에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해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파리협약은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약속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현재로서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지금과 같은 수준의 기후정책만을 이행한다면 목표한 만큼의 지구 온도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약속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보니 감축 목표 자체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모든 국가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더라도 기후변화를 막는데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탄소배출에 많은 책임이 있는 북미와 유럽 등 북반구 국가들은 기후위기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있는 남반구 국가들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이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단순히 탄소배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생태 파괴에 대해서 책임진다면 400억 달러가량을 남반구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2021년 10억 달러만을 지원하겠다고 의결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약속하는 선언들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군사 부문에서도 탄소배출량을 절감해야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기 사용으로 인명 피해는 물론 환경까지 파괴하는 전쟁을 비롯해서, 군사훈련과 군사기지는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기 때문에 기후위기와 연관이 큼니다.

→ 참고기사: [\[뉴스 핑귌\] 인류가 빠진 군대·전쟁·기후위기의 굴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장애인을 언급한 국가는 세계에서 35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경우 폭염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사망할 확률이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5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가 더 어려운데도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 ✳ 아프리카 대륙에서 착취되고 있는 자원
- * 관련 내용: [코발트 배터리 공급망의 아동노동 착취 문제에 대처하지 않은 대기업들](#)
- * 생각 거리: 위의 내용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북반구의 국가, 남반구의 국가도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모든 국가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히 부유하고 산업화된 국가는

기후변화를 야기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며,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보다 더 빨리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더 피해받는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구에서 여러 국가들이 모인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을 선언문에 넣지 않기도 하고, 그나마 함께 선언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국제사회.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게 할 수 있을지 우리의 상상력을 모아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활동목적**

국제사회의 협조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해봅니다. 본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개개인의 실천을 넘어 기후위기의 책임이 있는 국가와 국제사회에 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 시간**

20분

*** 진행방법**

1. 참여자들에게 간단히 본 활동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명자료를 활용해 국제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2. 참여자들에게 활동지를 활용해 국제사회에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써볼 것을 제안합니다.
 -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약속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누구에게 편지를 쓸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한국의 대통령, 탄소배출이 많은 나라의 대통령, 유엔 기후위기 관련 기구의 총장 등 또 실제 사람이나 기구, 회의가 아니더라도 어떤 역할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기구 등을 상정하여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3. 작성이 완료되면 짝공과 (혹은 그룹에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편지를 썼는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4.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개개인의 실천을 넘어 기후위기의 책임이 높은 국가와 국제사회에 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 진행노트**

- 본 활동은 간단히 진행되는 활동으로, 참여자들이 국제사회가 어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경험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드시 실제 존재하는 대상을 향해 편지를 쓰는 방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참여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 편지의 내용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어떤 대상에 벌을 주고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엄중하게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국제사회에 편지를 써보자!

편지를 받을 대상을 쓰세요.

편지를 쓰는 자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합니다.

기후위기의 문제점/우려사항을 요약하여 쓰세요.

(예를 들어, “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저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려하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이어, 여러분이 바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기후위기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는 나라의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후재난 피해국에 지원금을 지금 당장 주기를 요청합니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답장을 요구하는 문구를 포함시켜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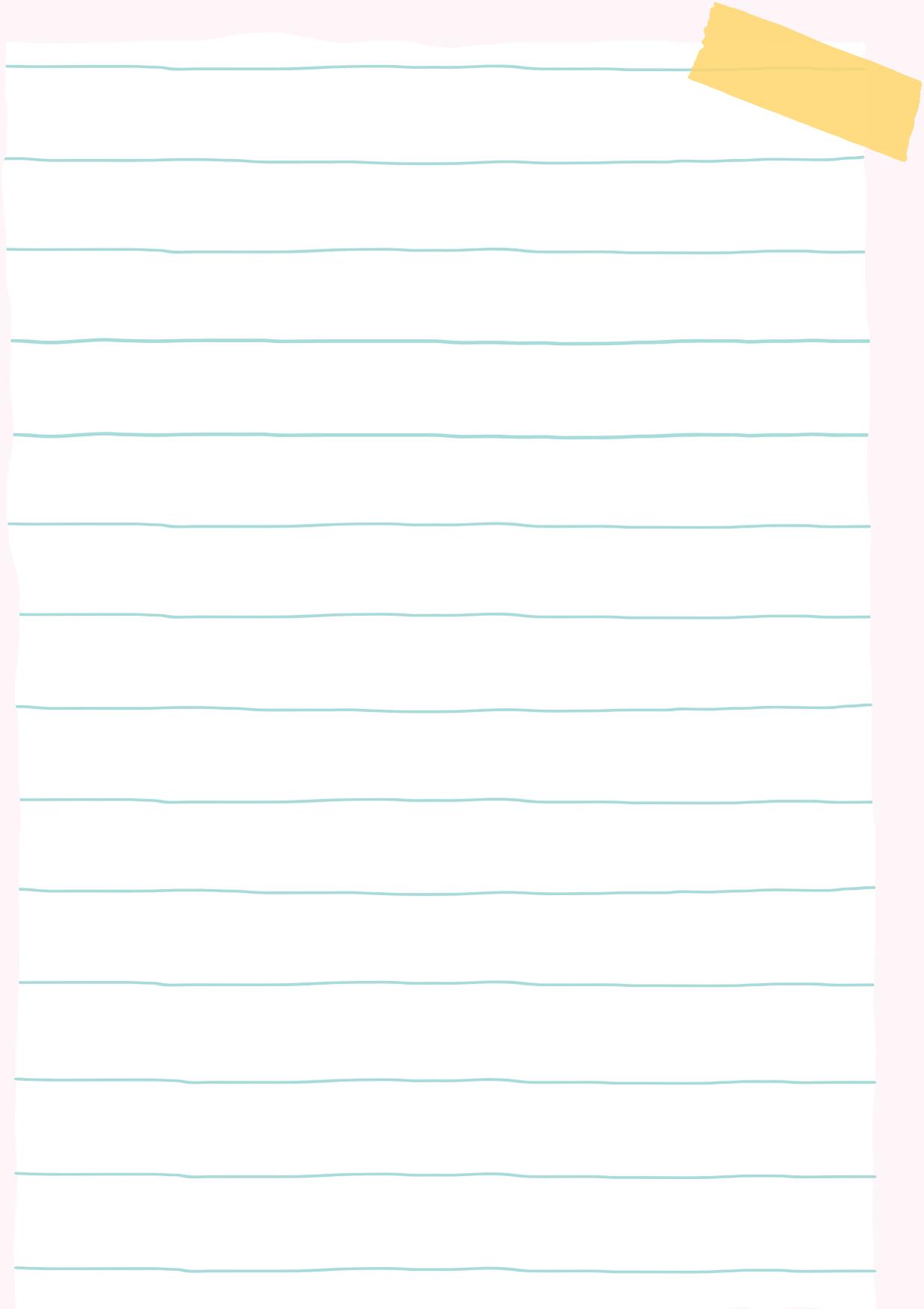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방법을 마련할 것인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어떤 조치를 하실지에 관한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쓴 날짜와 함께, 답장을 받을 연락처를 쓰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거나 서명하세요.



*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기후행동'의 캠페인 모습 ©청소년 기후행동



3) 세상 바꾸기! 그런데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어떤 지역이나 산업 업종에서 급속하게 산업구조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때, 그 **변화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특히 기존의 사업에 종사했던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으로 인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큼니다.

예를 들면 탄소 절감을 위해서 석탄 발전소가 앞으로 점점 폐쇄되고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또는 내연기관(석유, 천연가스, 바이오디젤)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 산업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직장을 잃게 되거나, 그런 대규모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의지해 왔던 지역의 경제가 전환의 과정에서 몰락하지 않도록,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와 정치권,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전환에 있어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는, 산업 전환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게 될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주민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적합한 대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환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환의 당사자이자 주체로서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는 산업의 전환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전환해가는 것에 있어서 꼭 적용이 필요한 점입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의 전환에 있어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모이는 것, 연결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개인 각자가 자신의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에 동참하고, 채식 등을 통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각자가 속한 사회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과정을 거쳐 변화해갈 수 있게 하는 노력 또한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큰 '전환'의 시기에 세상을 잘 바꿔낼 수 있는 것은 시민인 우리 자신입니다. 기후 위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거나 막막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알려주고 함께 실천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활동목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적 자원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민관의 주체가 모여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피해자가 이해당사자로서 거버넌스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진행방법

1. ‘거버넌스’에 대해서 국내외의 사례를 들어서 학습자들에게 설명해주세요.
(예. 남미 안데스 지역에서는 6개 부족 선주민들과 비영리단체가 자체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함께 감자공원을 운영하고, 그 지역에서 감자의 종자 다양성을 보호하는 보호법과 보호구역을 선포하였음. 이를 통해서 단일한 품종의 감자가 아니라 다양한 품종을 지켜가고 있음. 단일 작물만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대형 농장 시스템은 자연재해나 환경파괴 속에서 취약하고, 단일 품종이 멸종되는 경우 식량난 등의 위기에서 대안이 적어짐. 시민들의 거버넌스 활동 참여로 이러한 위험을 막고 품종 다양성을 지켜가고 있는 사례임.)
2.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위원회’ 구성을 상정하고, 진행도구의 캐릭터 카드 중 각자 한 명씩 선택하게 합니다.
3. 앞선 “활동② 나는 어디에서 있나요?”의 캐릭터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설정해보도록 합니다.(큰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사는 청소년, 노년의 여성 택배노동자 등)
4. 자신이 맡은 역할의 사람이 왜 꼭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간단히 적어봅니다.
5. 자신이 맡은 역할의 인물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한 줄 선언문의 형태로 적습니다. “나는 ~을 원합니다.”, “나는 ~ 어떤 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의 형식으로 씁니다. 자신만의 한 줄 선언문을 ‘스포큰 워드’의 방식으로 읽어봅니다.
6. 한 줄 선언문을 읽고나면, 다른 사람들은 청중이 되어서 박수와 환호로 호응합니다.

※ 진행노트

- 참여자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쓰는 ‘한 줄 선언문’을 적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국제 앰네스티 디지털 캠페인 ‘이상한 재판’](#)을 시청하며 참고해서 작성하도록 해주세요.
- 스포큰 워드 활동에서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주변의 물건들을 활용해 두들기면서 반주처럼 활용하거나, 참여자 자신의 몸을 두드려서 리듬감을 만들어봐도 좋다고 알려주세요. 또 참여자가 운율감 없이 표현하거나, 큰 소리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격려해주세요.

※ **진행도구_캐릭터 카드**

(1) 청소년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은 이전 세대 보다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이 훨씬 적은데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편이에요. 청소년은 이미 많은 권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서 ‘현재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여전히 ‘미래 세대’로 잘못 불리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지금 보다 더 확대되도록 보장받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합니다.

(2) 선주민

선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땅을 비롯하여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결과에 노출된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주민들은 과거에 그들의 땅을 빼앗고 통치해온 이민자들에 의해서 식민주의, 억압, 조상의 땅을 몰수당하는 일들을 많이 겪어왔고 현재는 특히 이주민들에 의한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주민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3) 여성

여성과 소녀는 기후위기로 인해 더 큰 위험과 부담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교차 형태의 차별을 겪는 여성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여성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고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이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회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 등에 여성이 참여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4) 저소득 시민

빈곤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큰 부담은 빈곤층이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더 부유한 사람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최악의 결과를 겪는 가난한 사람들은 대응할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도와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며 복지도 악화시킵니다. 수억 명이 식량 불안정, 강제 이주, 질병 및 사망의 위기에 놓여있어요.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기후변화가 인권을 위협하고 인류가 지난 50년 간 개발해온 것들과, 세계 보건을 위협할 것이며 빈곤이 감소되어 오던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장애인

장애인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장애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에 어려운 점들을 고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에도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불편함 없이 함께 살아가며, 많은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6) 노동자

노동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하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특히 많이 받는 노동자들을 떠올려볼까요? 예를 들면 너무 덥거나 추울 때도 공사 현장 등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 노동자나 택배 노동자, 방호복을 여러 겹 입고 일하는 의료 노동자도 있습니다. 또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직장을 잃게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희생이 지속되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가기 위해서 산업전환의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외에도 꼭 포함했으면 하는 인물 유형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아요!
(농민, 어민, 성소수자, 예술가 등)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위원회를 구성해보자"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한 줄 선언문' 작성하고 표현하기, 서로 지지하고 지지받기

내가 선택한 역할은 어떤 사람인가요?

위의 사람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나만의 한 줄 선언문'을 적고 '스포큰 워드'의 방식으로 읽고 나눠봅시다.

("나는 ~을 원합니다.", "나는 ~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의 형식으로 써보세요)

* 스포큰 워드(spoken word): '말로 쓰는 글', 또는 '말로 쓰는 시'. 이야기 풀이의 미학에 초점을 두는 시문학이며, 재치 있는 언어의 기술(word play)과 억양 등에 초점을 맞추는 말하기 예술(oral art) 장르를 말합니다.(출처: 위키백과)

- 스포큰 워드 예시 영상 보기

- [말하는 오후](#)
- [최선과 열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꾼 '소울리스좌'](#)
- [마틴 루터킹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읽기 자료

'기후위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면,

[\[국제앰네스티\] 기후위기에 맞서는 유스를 위한 액션툴킷](#)을 활용해보세요

'기후난민'

[\[YTN\] 전쟁만큼 무서운 기후변화...'기후난민' 확산](#)

[\[국가환경교육센터\] 기후난민을 아시나요?](#)

[\[위키백과\] 생태학적 난민](#)

[\[경향신문\] 기후 난민 확산, 나라 안 따진다](#)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들

[\[OECD iLibrary\] 모두가 함께 하기: 불평등성이 낮을 수록 모두가 혜택을 받는 이유](#)

[\[KDI 경제정보센터\] 불평등, 지표로 보는 10년](#)

[\[OXFAM 2022 불평등 보고서\]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

[\[국제앰네스티\] 혐오에 맞서는 유스를 위한 액션툴킷](#)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변화의 인간화](#)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교수)

[\[국제앰네스티\] 기후위기 유스 액션 프로젝트](#)

- 기후위기는 왜 인권위기인가?(이송희일 영화감독)

- 캠페인 트레이닝: 예술로 행동하기(쭈야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